

# 사슴 직거래장터 '사슴 계류장' 개장

- 오픈식 갖고 지역 양록인들과 활성화 방안 논의 -

매매자와 매수자가 직접 거래를 실시할 수 있는 '사슴 계류장'이 정식 오픈식을 갖고 힘찬 출발을 결의했다.

지난 5월13일 오후 1시 성심사슴계류장(대표:김수근)에서는 대구지회 회원 등 40여명이 모인 가운데 개장 기념행사를 갖고 사슴계류장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.

지회 월례모임과 함께 계류장 개장 기념행사를 갖은 본회 김수근부회장은 "사슴 매매에 있어 유통상 발생할 수 있는 불협화음을 최대한 줄이면서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류장 본연의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"고 밝히고 지역 회원 농가

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. 이날 참석한 양록농가 역시 사슴의 정식 거래장소가 탄생한 것에 대해 일제히 환영하며 사슴 계류장을 통해 보다 투명하고 안전한 사슴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.

현재 성심사슴계류장에 계류중인 사슴들은 모두 판매자로부터 사슴능력에 대한 확인서를 받은 상태로 거래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, 해결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. 또한 관리사마다 사슴의 출생지, 연령, 녹용생산량, 낙각일자, 이표, 특이사항 등을 기록한 개체관리카드가 부착되어 있어 계류장을 방문하는 구매자들이 사슴 내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.

대구 지회 회원들은 "대구를 시작으로 이와 같은 계류장이 전국적으로 확산된다면 보다 성숙한 사슴유통질서 확립에 일조할 수 있을 것"이라고 입을 모았다.

한편 대구지회는 이날 오픈식 후에 공동 구매한 마취관련 기자재 및 소독약, 구충제 등을 지회 회원들에게 공급했다. <권영재기자>

